

2009년
10월 1일
제 90 호

KBS 社友會報

www.kbssau.or.kr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김수웅 / 편집인 윤대작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 팩스 (02) 3210-1449

자문그룹 상담활동 만족도 높아 법무, 세무 등 실무생활 상담 등이 인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우회를 표방하며 출범시킨 본회 지원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지원위원회(위원장 김진우)가 출범 3개월간의 상담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1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사례별로 살펴보면 법률 분야는 형사적 사건에 대한 문의도 있었으나, 주로 재산권 다툼에 관한 민사 문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률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법무분야에서는 소유권 이전 관련 등 기 업무, 증여 상속 등 재산상속에 관

련한 법률문제 등과 문서(등기)가 없는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세무분야는 역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무 문의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 회원들의 공통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의 증여나, 절세 상속에 관련된 세무관련 문의가 많았다.

상담해 본 회원들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도 사우들의 이해도가 높고, 고마움을 적극 표시해 큰

보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신뢰속에 상담이 계속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상담을 자문해 주던 위너스 법무법인 대표 손교명 변호사가 청와대 정무 비서관의 중임을 맡아 이동했지만 같은 법률법인 광병철 변호사 등이 자문상담을 계속하게 된다.

신임 KBS 이사 본회 방문



KBS이사로 새로 선임된 남승자, 홍수완, 진홍순 회우가 지난 9월18일 신임 인사차 여의도 사우회 세미나실을 방문, 김수웅 회장과 환담했다.

이날 신임 이사들은 사우회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사우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연로회원 오찬에 초청합니다

KBS사우회는 연로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오찬회를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회합창단 공연과 여흥, 그리고 정성어린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 일시 : 10월 23일(금) 낮12시
 - 장소 : 신동양(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여의도 종합상가(먹자빌딩) 5층 TEL. 782-1754
 - 대상 : 70세이상(40년생 이전)의 사우회원
 - 참가신청 : 10월 19일까지
- ※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미주지회 KBS아메리카 신임사장 환영모임

미주지회는 'KBS아메리카'의 최후에 신임사장 환영회를 9월9일 LA에 있는 용궁식당에서 가졌다.

남가주지역 거주 사우들이 거의 다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는 아나운서 출신의 위진록, 유덕훈 원로회우를 비롯하여 이승상, 권운기, 정영호, 최숙경, 김미희, 서동숙, 유숙희 회우 등이 참석했고, 보도본부 출신의 김자규, 기술본부 출신의 조태오, 서승훈, TV본부 출신의 김흥수, 라디오 PD 이병훈 회우 등이 참석했다.

2년 이상 회비체납시 경조사 지원 못 받아

사우회는 회비, KBS지원, 발전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회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지원 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회원 지원사업으로는 친목활동 지원과 경조사 지원사업이 있다. 사우회는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7개분야(등산, 낚시, 문화유적답사, 사진, 서화, 바둑, 음악위원회)에 필요시 경비를 지원, 취미활동을 돕고 있다.

사우회가 직접 지원하는 경조사 사업은 ▶자녀결혼 10만원 또는 화환 ▶회수(77세), 산수(80세) 10만원 ▶부모 조의금 15만원 및 조화 ▶배우자 조의금 20만원 및 조화 ▶본인 조의금 30만원 및 조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회원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회비 2년이상 체납회원에게는 부득이 회무규정에 따라 각종 경조사 지원을 중지하며, 혜택 중지 기간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발전기금 기탁



이봉희 회우 양창석 회우 윤송남 이사

이봉희(전 LA-KTE사장)회우가 발전기금 30만원, 양창석(전 문화사업단 사업주관)회우가 발전기금 20만원, 윤송남(전 방송망운영국 위원)이사가 발전기금 10만원과 임원협찬금 10만원을 각각 기탁해 오셨습니다.

호천웅·김상준 회우

KBS 시청자 위원 위촉



KBS는 9월1일자로 본회 호천웅 회우

(사진 좌)와 김상준 회우(사진 우)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다. 호 회우는 보도국 사회부장, 남미지국장, 청주방송총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우는 아나운서 실장, 전주방송총국장 등을 역임한 후 동아방송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우회는 7월24일 'KBS 제20기 시청자위원회후보 추천 회의'를 열고 호천웅 회우를 추천했으며, 김상준 회우는 방송학회에서 추천하였다.

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여의도 KBS 연구동 4동 107호) Tel 781-8362, FAX 781-8269

KBS 88체육관 평생교육원 (☎ 02-2600-8808)

종 목	강습 시간	강습 요일	강습 료
수영	06:00 ~ 21:00	월수금/화목토	82,000원
헬스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60,000원
골프	06:00 ~ 22:00	월요일 ~ 일요일	180,000원
수영패키지 (수영+헬스)			92,000원
골프패키지 (골프+수영+헬스)			227,000원

운영종목 : 볼링, 탁구, 스쿼시,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스킨스쿠버, 포켓볼, 스포츠댄스, 요가, 검도, 유아체능단

- 제천88체육관 평생교육원(☎ 043-651-8855)
-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요가, 아쿠아로빅, 복싱다이아트
- 목포88체육관 평생교육원(☎ 061-284-8801)
- 수영, 헬스, 라켓볼, 아쿠아로빅, 튜트체능단

건강한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사우 여러분의 건강을
KBS 88체육관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대 할인 서비스		
사원 및 퇴직사원	본인 가족	30% 10%

KBS 비즈니스
www.kbs88.co.kr

삶의 단상 5

鄭九鎬



지난 여름 미국에 사는 외손녀가 다녀갔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그 아이는 가끔 방문하는 서울이 미

국에 비해 살기가 정말 편리하고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여러 기능을 장착한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 정도야 미국에도 있지만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못 갈 데가 없으며 참으로 신기해했다. 커피 집에 앉아서 차 한잔을 먹다가도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손녀가 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한류 유행을 만들며 미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원더 걸스'라는 소녀그룹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최근 폭스 TV에서 히트곡 '노바디(Nobody)'를 생방송으로 불러 소개됐지만 그전에도 내 손녀가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배워 친구들에게 가르쳐줬더니 그들이 아주 열광을 하더라는 것이다. 손녀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의

작은 시골마을 이어서 거기 문화와 서울 한복판 문화를 맞바로 비교하면 "한국은 '파라다이스'"라는 그 아이의 탄사가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어린 교포소녀의 눈에 비친 한국 문화와 경제 수준의 '경이로움'은 나로 하여금 한국의 성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받은 문화적 충격이 오로지 미국의 시골과 서울이라는 대도시 문화생활의 차이에서만 기인 된 것일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약하는 모습은 종종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말 한대로 그의 아버지의 나

존도가 크게 높아 이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집고 우리가 가장 먼저 탈출함으로서 또 한번 세계가 우리를 주목케 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는 민주화도 이룩했다.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임기5년의 대통령들을 평화적으로 교체했으며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의심할 사람은 적어도 한국 국민 중에는 한사람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치루어 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계획을 전개할 방침임을 천명했다.(주간조선 2009년 9월7일자)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의 확립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 스포츠에서도 이제 신흥 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했고 교통, 통신, 생활의 편의 면에서도 선진국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발전되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어왔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이런 자부심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단기적이며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성장은 문화, 경제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불균형의 모순을 동반하게 되었다. 눈부신 급성장 속에서도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속에서 아직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소득도 2만 불 고개에 걸려있어 3-4만 불 선진대열에 올라서기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 많다는 사실도.

내 손녀의 서울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경이로운 발전'이라는 표현이 전체 '한국'이 아니고 너무 '서울' 중심적 판단에서 오는 착시 현상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의 자부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회장, 전 KBS 사장)

자만이 아닌 자부심으로...

라 아프리카 케냐 보다도 못사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중의 하나였지 않은가. 그런 우리가 불과 40여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 규모의 나라로 우뚝 섰고 수출 규모는 금년에 세계 9위 대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의 내용은 더욱 놀랍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업 등 제조업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TV, 냉장고 등은 판매가가 세계 1, 2위를 기록한지 오래고 자동차도 금년에 세계 제4위로 뛰어 오르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작년 가을 세계를 강타한 대불황 속에서도 무역의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존 던컨 미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영국이 300년 걸린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이뤘다. 경제성장 뿐 아니라 민주화도 쟁취해냈고 교육 부분에도 많은 성장이 있었으니 한국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기본관념이 '자기 학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자랑스러운 한국인(Proud Korean)'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위한

회우 여러분은 지금...

등정

- ◆ 구능회 / 9월1일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위촉
- ◆ 김성호(광운대 교수) / 9월 18일 (사)글로벌콘텐츠네트워크 회장으로 추대
- ◆ 김인규(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 9월9일 서울 서메셋 팰리스에서 연합뉴스와 디지털 미디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안경은 / 10월14일~20일 경인미술관에서 유화전 개최
- ◆ 이흥주(복지TV사장) / 9월3일 광주 ACE Fair 2009-시청자 권익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
- ◆ 지중학(경남대 교수) / 9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
- ◆ 최관원(바둑위원회 위원장) / 아마 6단으로 승단. 일송(一松)기원으로 상호 변경.

- ◆ 이덕송 / 딸 10월 17일
- ◆ 김정규 / 딸 10월 17일
- ◆ 최남철 / 아들 10월 24일

회수

- ◆ 이평우 / 10월 19일

고의

- ◆ 오용근 / 10월 4일
- ◆ 임만규 / 10월 9일
- ◆ 이광주 / 10월 15일
- ◆ 박문호 / 10월 15일
- ◆ 김재춘 / 10월 22일
- ◆ 김석환 / 10월 23일
- ◆ 박영웅 / 10월 27일

부음

- ◆ 이봉희 / 모친상 (9/ 6)
- ◆ 황규남 / 부친상 (9/10)
- ◆ 이유호 / 부친상 (9/13)
- ◆ 현 서 / 장모상 (9/16)

자녀결혼

- ◆ 최학술 / 아들 (9/12)
- ◆ 방주석 / 아들 (9/26)
- ◆ 강희수 / 아들 10월 9일
- ◆ 이정욱 / 아들 10월10일
- ◆ 임현욱 / 딸 10월10일
- ◆ 장광현 / 딸 10월 11일
- ◆ 김시영 / 딸 10월 17일
- ◆ 오영관 / 아들 10월 17일
- ◆ 권순복 / 아들 10월 17일

단파방송 항일운동 기념식



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주최로 열린 단파방송 연락운동 기념식이 9월 25일 여의도 KBS 본관 물방비 앞에서 개최됐다.

많은 원로 방송인들과 KBS 기술본부장 등 현역사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의 단파방송 연락운동의 전개 과정과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신입 회우 환영합니다

- ◆ 강준길 / 561-848, 전북 전주 덕진구 호성동 1가 851 진흥대블록 209-1006 (011-676-6251, 063-241-2458)
- ◆ 권태일 / 152-080, 서울 구로구 교차2동 329 청솔우성 101-602 (010-9902-8229, 02-2615-8229)
- ◆ 김광석 / 140-75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10-902 (010-3898-4055, 02-706-2423)
- ◆ 김삼근 /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역기 103-1308 (010-6367-1922, 02-3679-1922)
- ◆ 김성일 / 573-778, 전북 군산시 나운2동 현대3차 304-1903 (010-3728-3821, 063-462-6700)
- ◆ 김응국 / 411-380, 경기 고양시 일산구 정자동 881 호수마을현대 213-604 (010-3898-3058, 031-902-7970)
- ◆ 김준석 / 142-884, 서울 강북구 인수동 391-177 (010-3898-4021, 02-907-0736)
- ◆ 김진수 / 695-973,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 1541 (010-6675-3334, 064-782-4443)
- ◆ 김창수 / 690-817, 제주 제주시 연동 1399-1 대림 206-1204 (010-5777-5231, 064-742-5231)
- ◆ 김태중 / 699-903, 제주도 성산읍 성산리 174-7 (016-9840-3262, 064-782-3573)
- ◆ 남정엽 / 506-252, 광주 광산구 흑석동 518 중흥에스플러스 203-1002 (010-9886-4157, 062-576-4157)
- ◆ 박균량 / 410-3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94-7 3층 (010-3025-2785, 070-8823-2785)
- ◆ 박상현 / 608-832, 부산 남구 용호동 176-8 LG메트로시티 211-1901 (010-3898-4175, 051-626-7068)
- ◆ 박현순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888-53 방배자이 102-204 (010-3708-2500, 02-583-5094)
- ◆ 신지호 / 158-073,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303 e편한세상 102-1102 (010-5151-4767, 02-2602-1730)
- ◆ 안 원 / 220-122, 강원 원주시 태장1동 현대 104-502 (010-3393-8172, 033-745-8172)
- ◆ 안준상 /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97 신구래스밸리 101-106 (010-9120-0270, 02-422-5896)
- ◆ 유희열 / 463-0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진덕 505-1201 (010-3693-9191, 031-705-2970)
- ◆ 이광희 / 302-280, 대전 서구 월평동 누리 102-902 (010-5453-4871, 042-483-7078)
- ◆ 이명규 / 701-830, 대구 동구 동구 신천4동 464-36 (010-3519-2199, 053-751-2199)
- ◆ 이봉훈 / 200-811, 강원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719 (010-9013-1684, 033-262-2520)
- ◆ 이상빈 /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64-4 삼성백산블루밍 101-502 (010-3262-0899, 02-545-3025)
- ◆ 이성렬 / 631-862,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306-9 대동한미음 1206 (055-241-2399, 010-2435-2399)
- ◆ 이원섭 / 158-055, 서울 양천구 목5동 목동 320-401 (010-9098-9184, 02-2654-0925)
- ◆ 이유환 / 158-073,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303 E편한세상 101-902 (011-754-2087)
- ◆ 이준달 / 702-110, 대구 북구 서변동 영남대오빌 101-502 (010-3810-4252, 053-214-4259)
- ◆ 이천규 /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2 파크팰리스 1403 (010-5151-4127, 02-715-4127)
- ◆ 장석신 / 157-796, 서울 강서구 우정동 1199 우정산아파트 이편한세상 117-401 (010-8835-7196, 02-2606-4585)
- ◆ 장영길 / 8824, Hammond Dr. San Diego, CA.92123 USA (1-619-884-8811, 1-858-517-9191)
- ◆ 정한욱 / 135-79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7 역삼래미안 109-1605 (010-3132-2823, 02-554-4186)
- ◆ 조호윤 / 502-261, 광주 서구 상무동 1337-3 중흥플러스 106-1301 (010-5151-5569)
- ◆ 주 원 / 502-154,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 105-903 (010-5151-5225, 062-374-2277)
- ◆ 진홍순 /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백피스 103-302 (010-4857-0186, 02-6207-1023)
- ◆ 최병찬 / 156-723,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상도래미안차 101-301 (010-8977-6104, 02-821-7491)
- ◆ 최찬병 / 641-781, 경남 창원시 상남동 성원5차 512-1104 (011-9559-8418, 055-287-7744)
- ◆ 함병모 / 701-024, 대구 동구 신천4동 신동아 맨션 다-205 (011-813-1666, 053-751-7215)

하반기 친목활동 일정 안내

사우회 '09년 하반기 친목활동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참가신청을 당부드립니다.

◆ 낚시 대회

- 일시 : 10월 20일(화)
- 장소 : 화성시 서신면 전곡낚시터
- 출발 : 사우회 앞 06:30, 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 앞 07:00
- 참가신청 : 10월 16일 까지

◆ 문화유적 답사

- 일시 : 10월 27일(화)
- 장소 : 충북 보은 속리산(법주사)
- 출발 : 사우회 앞 07:30, 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 앞 08:00
- 참가신청 : 10월 16일 까지(45명 선착순 마감)

◆ 등산 대회

- 일시 : 11월 3일(화) 낮 11시

- 집결장소 : 관악산 매표소 입구
- 참가신청 : 10월 20일 까지

◆ 바둑대회

- 일시 : 11월 11일(수) 오전11시
- 장소 : 종삼기원(T.744-9531)
- 1,3호선 종로 3가역 (구)공교기원 뒷골목
- 참가신청 : 11월 7일 까지

◆ 사진 촬영 대회

- 일시 : 10월 15일(목) 07:00~
- 장소 : 경기도 용문산 일원
- 참가신청 : 010-5261-4916

詩 나는 우주 허무요 지구 빈 텅텅이

- 심심해서 일어난 일들



1] 옛 사람 넘기 그리도 어 려웠다는 고희고개를 혼자 넘자니 힘 드는 것보다 심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심술도 떨어보고 수리수리 마술도 부리고 싶다 심심해서 말이다 성[聖]모세의 기적이나 생[生]예수의 이적따윈 못 넘겨보지만, 그 있잖아 길거리 약장수나 알바 아마추어 대학생도 다 할 줄 아는 마술 요술 같은 것 거룩하신 신들도 심심하니까 싸우거나 싸움을 부치거나 헛된 장풍을 날리지 않던가 막이 열리고

-해야 솟아라 하니 해 뜨더라, 동에서 서로 한 치의 오차도 보이지 않고, 질서를 자알 지키며 운행하더라, 거기다 보너스로 따뜻한 기운을 만물에 고루 아낌없이 뿌려 주더라 하느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더라*-

2] 물아 흘러라 하니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더라 왕도 거렁뱅이도, 모란도 개망초도, 사자도 지렁이도 구별 않고 몸을 적셔주면서 흘러 가더라 노자 장자도 덩달아 좋아 좋아 하더라**

땅이 심심하다 하니 자작나무도 선인장

도 심어준다 아카시아꽃에 밤꽃, 칩꽃 향기 퍼뜨려 잠을 설치게 하더니 복사꽃, 능금꽃, 벚꽃 피워 일용할 양식까지 싸준다 아무렴, 만물도 배가 불러야 태도 나고 때깔도 곱지

3] 오랑캐가 아닌 달이 해를 베어 먹는 작은 사건이 생기긴 해도 모든 게 질서 정연하게 이뤄지는 그게 심심해 심심해 이번엔 바람을 불러 모으고 싶다 해서 바람아 불어라! 하니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처음엔 살랑살랑, 한들한들, 간질간질 불더니 미풍이 강풍으로 다시 폭풍 태풍으로 변해 우주가 노했다 급기야 우주공간까지 불어닥쳐 심심한 내 육신을 따라 다니던 그림자까지 쓸어가 버린다 이제 나는 우주 허무요 지구 빈 텅텅이다

다시는 심심한 절망 맞으려 깨거나 허황된 새 날을 기다리지 말자고, 성스러운 탄식하나 허공을 맴돈다

* 성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원용
** 노자 장자는 물의 자연스러움 막힘 없음을 얘기함

글 : 박준연 회우

시청자위원을 마치고...



지난달 8월 말로 사우회 추천으로 시작한 시청자위원의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현직에 있을 때는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 '법이 정한 필수적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쁜 현업자라도 질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야했고, 엄정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정자세로 앉아서 질문에 답변을 했던 심히 편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당시 사측 참석자들의 해이한 분위기가 간파되면, 대선배이신 시청자위원장은 '시청자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사측에 문제가 있을 시, 시청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측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점잖게 사측에 경고하시기도 했었다.

2008년도 9월 첫 회의는 본관 3층의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니, KBS의 직원으로서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 시청자위원으로 앉아 있자니 감회가 새로웠다. 현직에 있을 때 참석한 시청자위원회와 달리, 2008년도의 시청자 위원회는 보도, 시사교양, 오락 각 부문의 간사들이 토의를 통해 질문을 취합한 내용을 대 표로 발표하며 진행하였다.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중복된 질문을 거를 수 있어 효율적인 면도 있었다.

시청자위원회는 본회의 외에도 소속 소 위원회에 참석한다. 본인은 참여 프로그램 소위에 참석했는데, 매월 열흘은 15분 또는 30분 프로그램 최소 18편 최대 35 편까지 보아야 했다. 작년 연말은 개인적 일이 많았고, 프로그램 모니터도 많아, 어 지간히 바쁘고 힘들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조심스럽고 어려웠던 것은 한 때 제작부서에서 함께 일하며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넘치거나 부족함없이 비평하거나, 칭찬하는 것이었다. 제작진을 위촉시키거나 경직시킬 수 있는 오진이나 과잉처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 시청자회의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묻고 질책하셨던 중에는 방송 진행자들의 발음 문제, 정확치 않은 언어 사용이 많았다. 발음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매번 유사한 내용을 지적하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이제 그만 하셔도 될 터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런데 지난 1년, 그 선배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나의 어리석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 후 떠난 회사를 다시 찾아서 과거를 반추할 시간은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시청자위원에 추천해주신 사우회에 감사드립니다.

글 : 이동순 회우

방·송·유·사

방송원(放送員)의 유래



경성(京城), 1945년(쇼와 20년) 8월 15일 정오. 시보에 이어 와다(和田信賢) 방송원이 중대 방송을 예고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기립해 주십시오"라는 방송멘트로 보아 천황의 옥음방송이 분명하다.

경성서북부의 고지대에 위치한 경성중앙방송국의 나카무라(中村正七) 방송원은 이 방송이 일본 최초의 천황 옥음에 의한 종전 칙어(勅語)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카무라는 옆에 있던 여성 방송원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방송된 다카하시(高橋清) 경무부장의 '종전을 맞이하여'라는 담화를 이계원(李啓元) 방송원이 조선어로 번역하여 방송했다.

앞의 상황은 해방 시기 경성중앙방송국의 단편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와다, 나카무라, 이계원 등의 뒤에 붙은 방송원은 아나운서의 다른 이름이다.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삼성출판사, 1975)에서도 「아나운서」를 「방송국의 방송원」, 「방송원」을 「방송을 맡아 하는 사람」이라 정의했다.

일제 말 「아나운서」라는 용어를 적성어로 규정

일제는 1942년 7월부터 「아나운서」라는 용어를 적성어(敵性語)라는 이유로 「방송원」으로 바꾸어 쓰도록 했다. 이 조치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포고하고 미국 점령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영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건이다.

따라서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 당시부터 사용해온 아나운서의 명칭이 사라진 것이다. 그 해 2월 3일자 조선일보에도 「경성방송국의 새로운 아나운서」(기사 제목)를 소개했고, 1934년 1월 2일자에서는 「미쓰·아나운서 미스터·아나운서·마이크로폰의 반력자들」(원문대로 표기)이라는 제목 아래 박충근, 남정준, 김문경, 최아지 등의 아나운서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정부 수립 후 국영방송시대에는 이 방송원이라는 직명(職名)이 사라지고 공무원 직제에 따라 PD, 아나운서

그리고 기자 모두가 서기, 주사, 사무관 등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주사가 취재를 나간다는 서기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니 방송직종을 따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주무관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겨우 인정해준 것이 아나운서 직종이었다. 그리하여 1953년 11월 아나운서 직종만은 방송원, 방송사, 방송관 등의 직명을 부여 받았다. 방송을 모르는 관료들이 아나운서만이 방송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아나운서 전성시대의 영향인지는 알 길이 없다. 최초의 방송관(放送官)은 서울중앙방송국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윤길구(尹吉九)였으며, 그 후 장기범, 강찬선, 강익수, 임택근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나운서」 직종 「방송원」 직제 1953년 11월 부활

이 방송원이라는 아나운서 대체어는 적어도 직명, 직급에서만은 국영방송 KBS가 1973년 한국방송공사로 전환되기 전까지(문공부 공무원 공채 -아나운서- 모집 시) 사용됐다. 방송할 때는 아나운서를 방송원이라 하지 않고 누구누구 아나운서라고 부르긴 했지만 국영 KBS 아나운서에게는 방송원, 방송사, 방송관 등의 직급이 주어졌다.

그 당시 방송원(아나운서) 직급은 지금의 8급(그 당시는 5급갑)에 해당되며 최말단 9급(그 당시 5급을)은 방송원보였고 7급 주사보는 방송사보, 6급 주사는 방송사, 3급을 사무관은 방송관보, 3급갑 서기관은 방송관 등으로 구분했다.

여수로 첫 발령을 받아 내려가 보니 대전방송국에서 조창동 선배가 같은 날짜 발령이었다. 그 분은 아나운서로 4급 방송사였는데, 곧바로 방송과장이 됐다.

2004년 9월 30일 작고한 조 선배는 내 KBS 생활 36년 6개월 중 첫 상사였는데, 진정성을 겸비한 훌륭한 그리운 방송인 중의 한 분이다.

방송원의 유래를 추적, 조사하면서 느낀 소회- '역사는 길고 모질다.' 일제시대의 유산이 1970년대 초까지 30여년에 걸쳐 이어진 셈이기 때문이라. 한 기관의 일하는 방식인 조직문화는 한번 느슨하게 형성되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KBS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를 이끄는 선진형의 조직문화가 생성되고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 : 김성호(광운대 교수, 언론학 박사) 회우



이승에서는 다시 볼 수 없애...

유병은 선배님을 기리며...

지난 8월24일 향년 92세의 유병은 선배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공원묘지에서 영면하심을 지켜보면서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이라더니 --- 깊은 정념에 잠겼습니다. 20대에 KBS에 입사, 반백년 이상 선후배 동료로서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우리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을 하직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새삼스럽게 인생무상을 또 한 차례 느껴봅니다.

선배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손을 덥석 내밀 줄 아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분이셨습니다.

1957년 당시 6개월간의 미국 방송현장 연수를 마치고 국제방송국과, 서울중앙방송국 기술과장, 조정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많은 공적을 쌓아 서울시문 화상과 대한민국 방송문화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송인의 최고의 영예인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되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방관하던 일제 말의 단파방송 연락운동의 진상을 몸소 찾아내 KBS본관앞 「물방비」 건립 등에 기여하신 노고는 선배님의 큰 공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선배님이었습니다.

방송야화도 저술하고, 말년에는 방송 고적 장비를 수집하여, KBS박물관 준비위원회에 많은 희귀자료를 이관하는 등 90평생이 방송만을 위한 「생」이였습니다. 대전방송국장으로 정년을 마치셨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송관련 연구에만 온 정열을 다 바쳐 오신 선배님.

인간은 그 생명을 다하는 순간 「做好德(유호덕: 어진 덕을 닦음)」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됨을 제일 서러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을... 선배님이 그토록 열망하시던 모든 일들은 우리 후배들이 잘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길 다 잊으시고, 편안히 잠드시옵소서.

글 : 우제탁 회우



요즘 어떠세요?

김우식 회우와 함께

2학기 개강으로 다시 활기를 띤 인덕대학 캠퍼스, 9월의 햇살이 창문을 타고 따갑게 내려오는 수업이 끝난 텅 빈 교실에서, 방송 현업 25년 후 교수로 변신하여 12년6개월 만에 지난달 정년퇴임식을 가진 김우식 회우를 만났다.

○ 먼저 정년퇴임을 축하합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방송생활을 접고 학교로 올 때 정말 많은 고심을 했지요. 그러나 학생들과 함께한 생활이 너무나 손살 같이 지나가 벌써 정년(65세)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아쉬움도 있지만, 정말 즐겁고 보람된, 잘 선택한 길이었습시다.”

○ 교수로서 느끼신 가장 큰 보람은...
“젊은 세대들에게 참 인간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한 것을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HDTV와 제작기술의 4편의 교재를 개발하였고, 5편의 논문, 5편의 연구보고서를, 교양서로 ‘새장속의 새는 나가려하고’를 저술했고요.”

○ 이번 뜻깊은 퇴임식상에서 남기신 명언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 요점은 서부영화의 배경음악 작곡가인 엔리코 모리코네가 여든이 넘는 나이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는 지금 도착이

아닌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라고 한 수상소감과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게츠비’를 통하여 제시한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면서 저도 지금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도착이 아닌 출발점에서 샘솟는 의욕을 가지고 내일을 향한 꿈과

나. 그것이 제자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나를 따르고, 나에게 찾아오게 하였나 봅니다.”

○ ‘새장속의 새는 나가려하고’라는 교양서적도 출판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라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참 많이 느꼈

의도 들고, 침 뜬 봉사도 하는데,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네요. 그리고 뜬나는 대로 컴퓨터 바둑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 바둑실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학교 때부터 두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바둑에서 7~8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바둑을 참 좋아해서 아마 죽는 날 까지 둘 것 같네요.”

○ 바둑 외에 침과 뜬에 관해서도 애정을 갖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원래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제 주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수지침을 배우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지요, 그리고 주위에 애정을 가지고 베풀고 전파하다보니 자연히 침 뜬에 관심과 함께 공부도 하게 되었나 봅니다.”

○ 앞으로 계획은?

“학교에 계속 출강하면서, 또 인덕대 평생교육원에서 ‘생활교양 및 생활철학’이라는 교양강좌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뜬 사랑 봉사활동 등, 제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 아직도 청년 같이 보이는데 비결이 있다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그런가 보죠. 하하하... 그리고 하루 만보이상 걷고, 바둑으로 정신건강도 단련하지요.”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터뷰·사진 : 이상수 회우



“나는 지금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희망을 준비하고자 한다.

샘솟는 의욕만 있다면 내일은 항상 열려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비법은?
“부끄럽습니다. 다만 솔직하고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민했습

어요. 수업 중에 쌓인 교양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젊은이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고자 책을 만들었지요. 졸업반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고 대신에 독후감을 쓰게 하여 무언가 느끼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 퇴임하신지 한달 남짓 지났는데요 요즘 일과는?

“주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보내고요, 그 외 시간에는 침 뜬에 대한 강

계열사 탐방 - KBS비즈니스



(주)KBS비즈니스(사장 김창희)는 1989년 4월 KBS가 전역 출자하여 설립한 계열사로 방송시설관리, 스포츠사업, 평생교육사업, 방송기술, 정보통신 그밖에 전기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문회사이다.

KBS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KBS와 계열사 임직원, 퇴직사우 본인, 가족이 88체육관을 이용할 때 할인(10%~30%)혜택을 주고 있어, 지금도 많은 현직과 퇴직사우들이 이용하고 있다.

KBS비즈니스는 KBS88체육관, 지역 KBS홀(부산, 창원, 울산)을 이용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술 문화행사 제공은 물론



벌(서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KBS비즈니스는 2012년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뉴미디어 방송의 출현에 따른 DTV, DMB, IPTV 등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의 융합 등 새로운 형태의 광대역서비스 준비가 한창이다. 2009년 4월부터 전국 방송시설의 컨설팅과 지원, 방송제작 송출시설의 설계, 각종 전기공사 관련 설계 시공, 방송통신 부대시설의 기술서비스 등 방송기술 정보통신과 전기공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방송시설, 스포츠 사업 전문회사

2009년 10월 현재 KBS(본·별관, 연구동)시설을 포함한 전국 14개의 지역방송(총)국과 상암동 KBS미디어센터 방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종합스포츠센터인 KBS88체육관과 제천 88체육관, 목포88체육관을 운영을 통해 사회체육 인구 저변확대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KBS88체육관은 수영, 헬스, 골프, 볼링, 에어로빅 등 모두 14개 종목에 이르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3천 9백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수준 높은 강습과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회원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9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양체육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평가 기관으로 인정받아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연 2,950여명 학점 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천88체육관은 수영, 헬스, 골프 등 9개 종목을, 목포88체육관은 수영, 헬스, 라켓볼 등 6개 종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력증진에 꾸준히 이바지하여 지역생활체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론, 지역문화 창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쉽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예술 행사 대관과 자체 기획사업을 개최하여 지역민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달 10월에는 2009 KTA 태권도 격파왕 대회, 2009 코리아 비보이스 페스티

회비내신분

2005~2009년/	김상진(대주)	정주환
2009년/	강춘길	권창호 권태일
김광석	김덕길	김상근(세울) 김세훈
김용문(기울)	김응국	김정연 김준성
김진수	김창수(대주)	김태중 김현성
남승자	문공필	박균량 박상현
박현순	서정혁	신지호 안 원
안준상	유수홍	유 영 유희엽
윤병남	윤주대	이광희 이명구(대주)
이봉훈	이상민	이성렬 이승만
이승의	이승철	이원섭 이종우
이종일	이준달	이천규 장경수(경)
장민웅	장석신	전태석 정한욱
조영숙	조호윤	진홍순 최남칠
최병찬	최찬병	한종근 한창환
함병모	홍수완	황규남
2010년/	김용문(기울)	김형진 남승자
서송훈	오동숙	유덕훈 전태석
조영숙		
2011년/	남승자	서송훈

(09년 8월 21일~09년 9월 20일까지 접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SC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국민의 방송 KBS

공정 · 공익방송의 정착은
수신료 현실화로부터!!

KBS한소리회 회원 일동

TEL. 011-9369-4166, 010-9550-1616